정읍 署令公종중 열선위 세향

입향조 5대이하 계대착오도 이정고유

▲ 서령공묘소에서 본 오봉안산의 전망

▲ 서령공묘소에서 고유제를 겸한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서령공묘소 좌록의 후대 묘역

전북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朱川里 탄동炭洞의 계좌원癸坐原, 즉 남남남남서향의 언덕에 추밀공파 정헌공계 화산부원군 花山府院君 증우의정贈右議政 휘 복復의 장손 서령공署令公 창昶의 묘소가 있다. 앞에 다섯 개의 작고 큰 봉우리가 능선을 이루며 호남평야지대에서 드물게 아늑한 형국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옛적에 숯을 많이 구워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살았다 해서 탄동炭洞, 즉 숯골로 불렸는데 특히 서령공 묘소가 든 곳이 일대에서 명당자리로 꼽히고 있다.

서령공 묘소 좌록左麓에는 그 유일남唯一男 봉사공奉事公 조操의 묘소가 자리하고 그 계하에는 봉사공의 손자 생원공 효행孝行의 묘소가 계장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산길을 띄우고 좌향을 약간 달리하며 좋은 지맥을 타고 후손의 유택이 계열을 이루고 있다. 서령공의 현손玄孫대에 이르면 주부공主簿公 계중繼中이 묘소를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隱仙里 영적동榮積洞 오좌원午坐原에 들이게 되고 진사공 자문自文이 영원면 은선리 탑립동塔立洞의 천태산天台山에 자리하게 되어 이후로 많은 후손이 이곳 은선리의 양처에도 계장되어 서령공종중의 선영산을 이루었다. 이러한 정읍의 서령공종중에서는 소성면 탄동과 영원면 은선리 선영의 세향歲享을 봄철에 받들고 있는데 4월 15일 화요일이 그 정일定日이었다.

이곳의 향사에도 옛같지가 않아 제관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다. 문중의 유사와 몇몇 유지후손이 참여하여 행사를 주선하여 치르는데 이를 수발하며 행례법을 익히는 젊은 후손을 보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묘소마다에로 교자틀을 메어가며 제물을 운반할 인력을 구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도 최존위 서령공만을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묘정墓庭에서 봉사하고 그 이하 제위는 묘역하의 재사에서 청사廳事행사로 바꾼 것이 여러해째이고 영원면 은선리의 양처 세향도 모두 청사에서 인향引香행사로 받들고 있다 하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성면 주천리의 탄동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재사에서 마련된 제물이 최존위 서령공 묘소로 봉송되어 올라가고 헌관이 도열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상석에 진설되었다. 금년 서령공의 묘사墓祀는 그 후손들의 족보상 계대착오를 변정辨正하였음을 아뢰는 중대한 고유제告由祭를 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고유제를 묘소에서 행하고 나서 다시 세사를 받들고자 하였으나 사세가 여의치 않으므로 이를 세사와 병합하여 행하기로 하고 그 상향常享 축문에 고유 내용을 더하여 지은 축문을 봉독하여 이를 거행하였다. 그 축문은 다음과 같았다.

유세차무자삼월병자삭 초십일을유십륙세손동준감소고우현십륙대조고중직대부사직서령부군 현십륙대조비숙인언양김씨지묘維歲次戊子三月丙子朔初十日乙酉十六世孫東俊敢昭告于顯十六代祖考中直大夫社稷署令府君 顯十六代祖 淑人彦陽金氏之墓 세천일제예중유제이자우로미증감모근용청작시수지봉상사歲薦一祭禮中有制履玆雨露彌增感慕謹用淸酌時羞祗奉常事 복이우유후계대착환차역서유구미정운잉황울금자행득고거이쾌명변근정소목기불음즐영교성오차이건고근고상향伏以又惟後系代錯換次易序悠久未整雲仍惶鬱今者倖得考據以快明辨謹正昭穆豈不陰 靈敎醒悟此以虔告謹告尙饗 : 세월의 차서로 무자년 3월 병자삭 초열흘 을유일에 16세손 동준은 감히 밝혀 16대조고 중직대부 사직서령부군과 16대조비 숙인 언양김씨의 묘소에 아뢰옵니다. 해에 따라 한 차례 제사를 드림은 예법에 있는 제도인데 이제 비와 이슬을 밟자니 감모의 마음이 더욱 더하는지라 삼가 맑은 술과 제철의 음식으로 정성껏 상서로운 제향을 드립니다. 또한 엎드려 헤아려 아뢰옵건대 후손의 계대가 착오되어 차서가 뒤바뀐 것이 유구하도록 바로잡히지 아니하니 많은 자손이 당혹하고 우울하였는데 이번에 다행히 고증할 근거를 얻어 이로써 명쾌히 분변하여 삼가 대수항렬을 바루었으니 이것이 어찌 존령께서 보이지 않게 도우시고 가르쳐 깨우치심이 아니리까. 이에 정성으로써 고하여 삼가 아뢰오니 바라옵건대 흠향하소서.

이번 고유 행사에는 화산부원군종회의 권진택權晋澤 회장이 인천시 부평에서 새벽에 출발해 내려와 참석하였다. 권진택회장은 행사 시작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하여 탄동의 서령공 묘소에 성배하고 재사로 내려와서는 청사행사로 하는 봉사공 이하 열위에 제례에 참제하고 음복후 영원면 은선리로 이동해서는 그곳의 열위 행례에도 두루 참제하였다. 양처의 행사를 필한 뒤의 음복석에서 권진택 종회장은 서령공종중의 유사들과 이번 서령공계 후손의 계대이정을 계기로 화산부원군파보花山府院君派譜를 발간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추밀공파 정헌공계로서 정헌공正獻公(14세 계림부원대군 후煦)의 현손 화산부원군 휘 복復을 파조로 하는 화산부원군파는 정헌공계의 6할을 차지하는데 그 파보를 발간한 지 30년이 넘었다.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글세대가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드는 지금 순한문의 구보는 효용성이 없게 되었고 최근 호주제 폐지와 호적법 개정으로 이제 족보가 아니고는 친족관계는 물론 가족관계조차 파악하여 아는 게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런 터에 안동권씨에서는 그 기초 인프라와 같은 한글판 대동보를 전산판과 병행하여 완성해 놓고 있다. 이에 화산부원군파에서 이 한글판전산대동보의 체제로 파보의 편제와 발간을 추진하여 책자는 책자대로 인쇄해 반질하고 전산원판과 인터넷판에는 또한 그대로 업데이트하여 반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바 이를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논의 끝에 이 파보는 그 장주長胄가 되는 서령공문중에서 이를 주도하여 권진택 회장을 중심으로 각계파가 고루 참여하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서령공계 후손의 계대에 문제가 발생한 내력을 살피자면 55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종端宗이 세조世祖의 찬위로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는 격변이 일어났을 때에 서령공은 20세의 약관으로 종3품 중직대부 사직서령社稷署令의 직위에 있었다. 이는 그 조부 화산부원군의 장손인 때문에 그 문음門蔭을 받은 바였다. 조부 화산부원군은 병조와 이조의 참의參議 등을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 판강계부사判江界府使 겸 절제사節制使로 나갔다가 순직하여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추증되었던 바인데 그 3자이자 서령공의 숙부인 양효공良孝公 공恭이 태종의 12녀 숙근옹주淑謹翁主의 부마로서 세조를 도와 좌익공신佐翼功臣이 됨에 따라 순충적덕보조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에 가증되고 화산부원군으로 추봉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좌랑공佐郞公 온溫은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그러나 서령공은 충심忠心을 단종에게 두고 세조를 따르지 않으며 당시 생육신生六臣의 1인으로서 집현전교리集賢殿校理이던 재종숙 충숙공忠肅公 절節과 뜻을 같이하다가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이때에 언양인彦陽人 군수郡守이던 장인 김약흠金若欽과 동서同壻 부제학副提學 이숭인李崇仁, 처남 부사府使 김극장金克 , 동종同宗으로서 복야공파 종정공계 예빈공禮賓公 집지執智의 증손이며 19세世 동항인 의금부 경력經歷 권관權寬 등 뜻을 같이하는 8인이 멀리 전라도 고부古阜로 내려가 영주瀛洲라는 별칭이 있는 이곳의 서산西山 아래 용강龍江가에 정자를 짓고 수양산首陽山에서 채미採薇한 백이伯夷、숙제叔齊의 뜻을 우寓하며 북풍北風을 노래하고 어초魚樵로 종생하니 세상일을 거의 잊었다. 이에 세인은 그 정자를 이들 여덟 사람을 뜻하는 팔랑정八郞亭 또는 팔현정八賢亭이라 불렀다.

그러나 공이 처가일속과 이렇게 서울을 떠나 낙남해 다시는 올라오지 않으므로 서울 본가에서는 공의 그 종자宗子로서의 봉사권奉祀權과 종재宗財

7면으로 계속